

숙면온도에 상황별 절전까지 더 똑똑해진 삼성 'AI 에어컨'

2025년 신제품 전 제품군 출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 제어
'삼성 AI구독클럽' 통해 구입 가능



삼성전자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모델.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신 인공지능(AI) 기
능으로 성능이 강화된 2025년 AI 에어컨 신제품 전 제품군을 7일 출시한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신제품은 지난달 선보인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에 더해 새롭게 출시하는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AI 무풍콤보 벽걸이 ▲AI Q9000 3종까지 총 4개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신제품 전 모델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AI 쾌적',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하는 'AI 절약모드' 등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능을 갖췄다.

'AI 무풍콤보 벽걸이' 라인업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쾌적제습' 기능도 탑재했다. 이 기능은 공간의 온·습도를 맞춤 제어해 피부와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는 40~60%의 건강 습도로 최적의 쾌적함을 제공한다.

'AI 쾌적' 기능은 사용자의 사용패턴과 날씨, 실내의 온도·습도 정보를 토대로 필요에 따라 '하이패스 회오리 냉방' 모드로 빠르고 강력하게 동작하고 때로는 무풍 모드로 전환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스탠드형 에어컨은 AI가 공간의 면적까지 고려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

고,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음성으로 환기 알람도 제공한다.

또 'AI 쾌적' 기능은 수면 시간에 특화된 '굿슬립' 모드도 지원한다. 갤럭시 위치나 갤럭시 링과 연동해 사용자의 수면이 감지되면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시키고 편안한 숙면 온도를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앱에서 설정 가능한 'AI 절약모드'는 상황별 맞춤 절전으로 에어컨 사용 에너지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AI가 분석한 에어컨의 월말 전력 사용량 예측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모든 삼성전자 가전의 전력 사용량까지 통합 분석하고 절전모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동 전환해 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에도 전기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클래식 에어컨' 라인의 일부 모델에 '빅스비' 기능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빅스비를 통해 음성만으로도 ▲모드 전환 ▲예약 ▲날씨에 맞춘 센싱·운전 선택 ▲부가기능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내 '자동화' 항목에서 영화모드, 수면모드 등 상황별 기기 동작 시나리오를 설정해두면 빅스비로 간편하게 상황별 가전을 통합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신제품 전 모델은 집안에 사람의 부재를 감지해 부재 시 알아서 내부 건조를 하는 '부재 건조', 알아서 절전하고 에어컨을 끄는 '부재 절전'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한편 삼성전자 에어컨 신제품 전 라인업은 '삼성 AI 구독클럽'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ul.co.kr

LS전선·에코에너지, 美 363억 케이블 공급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대응 주력

LS전선이 LS에코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 정책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송전망 구축 수요 증가에 맞춰 수주 실적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태양광 발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MV(메가와트)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처음으로 공급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미국 태양광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에 2500만달러(약 363억원) 규모의 35kV(킬로볼트)급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캘리포니아, 뉴저지, 인디애나 등 미국 전역의 태양광 발전 단지 전력망 구축에 사용된다. 고온·강우·먼지 등 극한 환경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고전압 전송 성능을 갖춰 태양광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양사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

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알루미늄 케이블 개발과 미국 안전 규격인 UL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수주는 미국 정부의 '탈중국' 정책과 맞물려 양사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케이블에 총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소재를 활용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물론 가온전선 등 전선 관계사들은 원자재 품질과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 중국산 알루미늄과 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지난해 동선(UTP) 케이블의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까지 수출이 확대되며 더욱 뚜렷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박차

경기도·화성시 업무협약 체결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함께 손을 맞잡았다.

기아는 6일 경기도 화성시 오토랜드 화성에서 송호성 사장, 최준영 국내생산담당 사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아는 세계 최초 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관련된 여러 인허가 및 인프라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아와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공모사업 및 관련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PBV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에도 함께 나선다.

구체적으로 기아는 PBV 기반의 W AV(휠체어용 차량), DRT(수요 응답 교통) 모델을 경기도와 화성특례시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아 송호성 사장이 6일 오토랜드 화성에서 'PBV 기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V2G(양방향 충전) 충전 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이번 전략적 협력이 맞춤형 PBV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아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제네시스 'GV60 부분변경' 모델 출시

4세대 배터리 탑재... 1회 충전 481km 주행 (84kWh)

제네시스 배터리 성능·효율 개선
전기차 세계해택 기준 6490만원



제네시스가 6일 서울 성동구 MM성수에서 전기차 GV60 부분변경 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제네시스가 3년 5개월 만에 럭셔리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60의 부분변경 모델을 6일 출시했다.

신형 GV60은 고급스러운 내·외부 디자인을 강화했으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81km까지로 주행거리를 늘렸다. 또 차세대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과 특화 사양으로 럭셔리 전기차 특유의 편안함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GV60에 탑재된 4세대 배터리는 용량을 기존의 77.4kWh에서 84kWh로 증대했다. 범퍼 형상 개선 및 3D 풀 언더커버 적용 등으로 공력 성능을 개선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451km에서 481km(복합, 스탠다드 2WD 기준)로 늘렸다. 또 배터리 용량 증대에도 배터리 냉각 성능 개선 등을 통해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기존모델과 동일한 18분(배터리 용량 10%→80%)의 충전 성능을 확보했다.

제네시스는 모던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선보이면서 차량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면부는 새로운 디자

인의 범퍼가 강인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고 화려하고 정교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MLA) 기술이 담긴 두 줄 헤드램프는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를 극대화했다. 측면부에 날렵한 5-스포크 기반의 '21인치 다크 메탈릭 글로스 그레이 휠'과 '20인치 라이트 실버 휠'을 새롭게 적용했고, 후면부는 GV60의 넓고 낮은 스탠스를 강조했다.

실내 디자인은 크리스탈 스피어(Crystal Sphere) 변속기와 원 모양의 디테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화했다. 또 클러스터와 AVN 화면 사이의 베젤을 없앤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하이테크

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행성능도 개선됐다. 제네시스 GV60에는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ICC) ▲차로 유지 보조 2 ▲직접식 감지(HoD) 스티어링 휠 등을 적용했다. 또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을 적용해 전방의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감속 패턴뿐 아니라 과속 카메라, 방지턱, 회전교차로 등 다양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주행 상황별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한다.

GV60의 가격은 전기차 세계해택 적용 기준 ▲스탠다드 2WD 6490만원 ▲스탠다드 AWD 6851만원 ▲퍼포먼스 AWD 7288만원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 "매장에서 '스탠바이미 2' 확인하세요"

전국 베스트샵 순차 전시

LG전자가 최근 사전예약 조기 완판으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LG 스탠바이미 2'를 전국 LG전자 베스트샵에 순차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는 LG전자가 지난 2021년 'LG 스탠바이미'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이다. 27형 QHD(2,560×1,440) 해상도 디스플레이

를 탑재해 FHD인 기존 제품보다 화질이 향상됐으며, 고용량 배터리 탑재로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사용 가능해 최근 관심이 뜨겁다.

LG전자 측은 "스탠바이미 2는 지난 달 21일 정식 출시 이후 사전 예약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하는 가운데, 고객들이 오프라인에서 체험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